

본질 II. 변화의 시점에서 본질을 붙잡으라.

[사도행전 6:1-15]

-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 8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 9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 10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 11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 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 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 변화의 시점은 '갈등' 과 '불편함' 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이 때 갈등과 불편함의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말씀' 이라는 본질을 지키려 했고 집중하려 했다.

[사도행전 6: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6: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들은 본질이 손상되는 일에 대한 경고등이 있었다. 그리고 현실에 있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결과를 낳게 하는 본질적 뿌리인 '영적인 일'을 먼저 세웠다

2. 본질과 영적원리

즉, 그들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어떻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히브리서 11:1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영적인 영역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실제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진리는 ‘팩트(fact)’의 현실이 진리의 말씀과 연합할 때 감정이 바뀐다. 그리고 감정은 히브리서 11:1절 (집중)이 되고, 결국 열매를 만든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팩트에 반응하며 산다. 그렇게 되니 열매가 뻗은 것이다. 우리는 ‘팩트’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존재이다.

3.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저항을 일으키는 내 안의 우상과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한다.

4. 초대교회는 ‘영적원리’ 본질에 집중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갈등은 오히려 다음단계로 나아가는 엄청난 도약의 발판이 된다.

5. 영적원리에 있어서 갈등과 불편함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약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세워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6. 다음단계로의 성장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야 한다. 영원한 것들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더 강력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초대교회는 결국 강력한 다음 단계로 성장한다

[사도행전 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기록한다. 성장한 것이다. 성숙하게 된 것이다. 본질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 회개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기동을 세움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성장했다.

7. 본질의 문화

그들 안에 있었던 비본질적인 갈등이 본질의 문화 안에서 완전히 잠식 당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비본질적인 열망이 본질적 문화 안에서 잠식 당해야 한다.

‘본질에 집중하라’ 그리고 본질이 활성화 되는 문화를 만들어 비본질적 암덩어리들을 완전히 제하라.

차선은 문제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하지만 해결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질은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해결하며 더 좋은 단계를 만들어 낸다. 기억하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8. 본질로 위기의 상황을 변화시키라.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에 반응하는 존재임을 믿으라. 그리고 권위로 땅(상황)을 변화시키라.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아무 방법도 없는 무계획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 시간이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지루한 시간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이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본질에 전념하라!!

[사도행전 6: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and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